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과 식생활 대처행동

University Students' Economic Distress and Coping Behavior in Meal Management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부교수 서 정 희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홍 순 명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lsan Univ.
Associate Prof. : Seo, Jeonghee
Dept. of Food & Nutrition, Ulsan Univ.
Prof. : Hong, Soonm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고찰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ffect of socio-economic variables and economic distress variables on the university students' coping behavior in meal management.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544 university students in Ulsan Areas. The independent explanatory power of socio-economic variables was larger than economic distress variables. But the explanatory power was increased in the regression analysis model that was included both the socio-economic variables and the economic distress variables. The influencing variables that effected the level of coping behavior in meal management were the amount of discretionary expenditure, gender, status of housing, employment distress and income distress.

I. 서론

1997년 말부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IMF시대 또는 IMF한파라고 통칭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위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 물가불안, 상대적 박탈불안과

같은 경제적 불안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계는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불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행동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행동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모가 경제적 만족감과 소득적정도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현은민과 최선남, 1999)가 있다. Berman과 Turk(1981)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편부모들이 자원활용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생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불안과 전반적인 대처행동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Voydanoff와 Donnelly, 1989; 황덕순, 1995)만이 이루어졌을 뿐,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식생활분야에서의 대처행동을 경험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처행동을 조사한 항목에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안은 식생활대처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시점에서 경제적 불안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과 대학생들이 가장 잘 실천할 수 있고, 가계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생활분야에서 대처행동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대처행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실천적으로는 식생활관리, 가계복지 정책 및 식생활 관련사업의 마케팅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불안의 개념

Voydanoff, Donnelly, Fine 등이(1984, 1988, 1989, 1990)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 경제적 불안은 가족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가계의 구조적 요인

에서 발생한 문제를 의미한다. 경제적 불안은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어떠한 차원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Voydanoff와 그의 동료들은 경제적 불안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경제적 불안은 소득불안과 고용불안의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황덕순(1995)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은 Voydanoff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소득불안과 고용불안 이외에도 재정불안, 물가불안 및 상대적 박탈불안을 추가함으로써 5개의 하위차원이 있다고 하였다. 재정불안은 가계의 수지불균형으로부터 파생하는 취약한 재정구조 때문에 나타난다. 고용, 소득 및 재정은 가계의 내적 구성요소인데 반하여 가계의 외적 환경에서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물가이므로 물가불안은 경제적 불안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소득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규범적 생활표준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불만이므로 경제적 불안의 하나의 구성요소가 된다.

IMF사태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파산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실업을 야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불안, 소득불안 및 재정불안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하고 있고, 물가불안도 가중시키고 있다. 고소득층은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득을 보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실질소득의 감소가 크게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커짐으로써 상대적 박탈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2. 식생활대처행동의 개념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행동을 문제해결적 대처방안과 정서적 대처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은 개인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서 스트레스를 감소하려는 노력이고, 정서적 대처방안은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자아와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임

으로써 정서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Lazarus (1976)는 정서적 대처방안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기기만 및 현실왜곡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스트레스 극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서적 대처방안은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이 불가능하거나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황덕순의 연구에 의하면 (1995) 대처행동을 구성하는 척도에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식품구입은 연쇄점이나 도매시장을 이용한다”와 “가족이 함께 외식을 자주 한다”의 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식품구입은 연쇄점이나 도매시장을 이용한다”가 주부들이 가장 빈번하게 실행하고 있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처행동을 구성하는 요인중에서 의도적 관리행동과 규범적 절약행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생활은 일상 생활에서 의도적 관리행동과 규범적 절약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특성이 강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IMF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행동으로서 대학생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영역중의 하나가 식생활대처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식생활대처행동을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체계자원인 응집력, 적응력, 조직력 등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며, 위협한 사건과 이에 따른 고난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고 나아가 사회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kinner, 1983; 조희선, 1991 재인용). 그러므로 식생활대처행동은 대학생이 IMF 경제위기라는 자극에 반응하여 가족시스템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행동으로써 식생활영역에서 자원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학생의 인지적·행동적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관련변수의 고찰

선행연구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식생활대처행동을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대처행동 전반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불안 변수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변수

김혜정(1995)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황덕순(1995)은 전반적인 대처행동과 대처행동의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피동적 적응행동, 의도적 적응행동 및 규범적 절약행동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대처행동은 가족생활주기와 주부의 학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피동적 대처행동은 주부의 학력, 주거소유형태,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자산의 크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의도적 관리행동은 가족생활주기, 주부의 학력, 주거소유형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규범적 절약행동은 주부의 학력, 가정의 직업지위, 주부의 직업지위, 가구원수 및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대학생의 식생활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경제적 불안

Voydanoff와 Donnelly(1989)는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이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Varcoe(1990)는 예상하지 못한 가계의 재정요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정행동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고, 차용이나 지불연기와 같은 대처행동도 한다고 하였다.

경제적 불안과 하위 불안이 대처행동과 하위 대처행동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분석한 황덕순(1995)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대처행동은 소득불안과 상대적 박탈불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동적 적응행동은 물가불안, 소득불안, 재정불안 및 상대적 박탈불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의도적 관리행동은 고용불안과 재정불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규범적 절약행동은 소득불안과 상대적 박탈불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경제적 불안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불안의 하위차원에 따라 그리고 대처행동의 하위차원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경제적 불안의 하위차원이 식생활 대처행동에 어떠한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4. 연구문제

이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식생활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2> 경제적 불안 변수는 식생활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3> 식생활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이 논문은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성별, 학년, 전공계열의 분포를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3월 23일부터 3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를 제외하고 544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이 논문의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 주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변수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불안

경제적 불안 척도는 황덕순(1995)의 연구를 참고

로 하여 물가불안 3문항, 소득불안 4문항, 고용불안 3문항, 재정불안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상대적 박탈불안은 별도로 측정하였다. 물가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및 재정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였다.

상대적 박탈불안은 Andrews와 Withey(1976)의 사다리척도를 0-10점으로 바꾸어 만든 생활수준 사다리에서 현재 자신의 형제자매, 이웃, 친구, 우리사회 일반의 생활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합산한 다음, 자신의 생활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4를 곱한 후 그 차를 구하였다. 그 차이가 0이면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잘산다고 여기는 것이 되고, 0보다 클수록 상대적으로 못산다고 여기는 것이 된다.

2) 식생활대처행동

식생활대처행동은 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식생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심층면접한 결과를 내용분석을 하여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을 부여하는 4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식생활대처행동 점수는 24점부터 104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통계처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 수준과 식생활대처행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불안이 식생활대처행동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불안을 각각 포함한 중회귀분석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불안을 모두 포함한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을 할 때 성별은 남자를 1로 하는 가변수로, 주거상태는 자취, 하숙, 기숙사 등을 1로 하는 가변수로 변환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53.1%로 남학생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은 25세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고 23-24세가 24.6%, 22세가 21.4%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

가 4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교로 31.3%를 차지하였고 기독교는 22.1%를 차지하였다.

주거상태는 자택이 69.4%, 기타가 30.6%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졸이하로 30.1%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46.6%로 가장 많았

<Table 1> Description of the sample

variable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238	46.9
	female	269	53.1
age	less than 21	98	19.3
	22	109	21.4
	23 - 24	125	24.6
	25 and over	177	34.8
housing status of respondents	home owner	354	69.4
	other	156	30.6
religion	no religion	232	46.6
	buddhist	162	31.3
	christian	111	22.1
educational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or less	151	30.1
	high school	258	51.4
	college degree and over	93	18.5
educational level of mother	elementary school or less	106	20.4
	middle school	166	33.5
	high school and over	237	46.1
occupation of father	professional	98	20.6
	sales	90	19.0
	worker	100	21.1
	official	187	39.4
occupation of mother	employed	186	36.5
	not employed	323	63.5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200,000won	132	25.9
	1,200,000 - 1,500,000	99	19.5
	1,500,000 - 2,000,000	110	21.6
	2,000,000	168	33.0
amount of discretionary expenditure	less than 100,000won	55	10.8
	100,000 - 200,000	246	48.4
	200,000 - 300,000	136	26.8
	300,000	71	14.0
irregularity of the date of income taking	same	191	37.9
	almost same	145	28.8
	not same	168	33.3
irregularity of the amount of income	same	67	13.3
	almost same	330	65.4
	not same	108	21.4

*total n is not same because of missing value

고, 종족은 32.6%, 국족이하도 20.8%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39.4%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은 20.6%, 생산직은 21.1%를 차지하였다. 어머니는 취업을 한 경우가 36.5%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3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0만원 미만으로 25.9%, 120-150만원이 19.5%로 가장 적었다.

한달 용돈의 크기는 10-20만원이 4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30만원으로 26.8%를 차지하였다. 소득유입시기의 불규칙성을 보면 '항상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가 37.9%로 가장 많았고,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가 33.3%,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가 28.8%를 차지함으로써 3/2 정도는 소득유입시기가 규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을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가 65.4%로 가장 많았고, '항상 다르다'도 21.4%나 되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경제적 불안의 수준과 하위 불안간의 관계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의 수준을 차원별로 살펴보면 소득불안은 평균이 10.7으로 척도의 중간점인 12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가장의 고용불안은 평균 7.4로 척도의 중간점인 9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재정불안은 평균이 16.7로 척도의 중간점인 1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물가불안은 평균이 7.5로 척도의 중간점인 9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Table 2> Economic distress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economic distress	item	range	mean	SD
income distress	4	5~16	10.7	1.6
employment distress	3	3~15	7.4	2.2
finance distress	5	5~25	16.7	4.8
consumer price distress	3	3~14	7.5	1.1
relative deprivation distress		-44~15	-8.8	10.9

상대적 박탈불안은 음의 값을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신을 잘 산다고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황덕순(1995)의 연구에 의하면 물가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의 평균이 모두 척도의 중간값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Table 3>을 보면 소득불안은 재정불안 및 물가불안과 아주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고용불안 및 상대적 박탈불안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불안은 재정불안 및 상대적 박탈불안과는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물가불안과는 아주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재정불안은 물가불안과는 아주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상대적 박탈불안과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물가불안은 상대적 박탈불안과 아주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물가불안이 상대적 박탈불안, 물가불안 및 재정불안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이 논문의 조사 시기가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3월이어서 부도기업들의 재고처리,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부도기업으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불안, 재정불

<Table 3> Inter-correlation among sub-economic distress

	income distress	employment distress	finance distress	consumer price distress
employment distress	.06	1.00		
finance distress	.10*	.30***	1.00	
consumer price distress	.12**	-.08*	-.12**	1.00
relative deprivation distress	.01	.31***	.45***	-.10*

*P < .05 **P < .01 ***P < .001

안, 소득불안 및 상대적 박탈불안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한 영역의 불안은 다른 영역으로 전이하여 불안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2.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식생활대처 행동의 수준

<Table 4>에서 IMF 경제위기에 대한 대학생의 식생활대처행동 수준을 보면 평균이 72.15로 척도의 중앙값인 65점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봐도 53점에서 78점에 해당되는 중이 6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79점부터 104점에 해당되는 상으로 27.6%를 차지하였고, 26점부터 52점에 해당되는 하는 4.5%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IMF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식생활영역에서 조차 자원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IMF 경제위기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우유나 요구르트 등을 먹지 않았고, 외식비를 줄였다는 이 중성(1998)의 연구, 부채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출을 줄인다는 Courtless(1971), Hayes(1989), 심영(1993), 팽경인(1988), 박영숙(1988), 황덕순(1993; 1995), 손상희(1995) 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도시가정은 재정적 사건에 대한 대처전략의 하나로 절약구매를 한다는 최자령과 임정빈(1996)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식생활대처행동

<Table 4> University students' coping behavior level in meal management

range	coping behavior in meal management	
	score	%
low	26 - 52	4.5
middle	53 - 78	67.9
high	79 - 104	27.6
mean	72.15	
SD	10.58	
total range	35 - 102	

<Table 5>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식생활대처 행동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보면 한달 용돈의 크기, 주거상태, 월평균가계소득, 성별 등은 P<.001 수준에서 식생활대처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나,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연수 등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변수들은 대학생의 식생활대처행동 분산의 19.9%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식생활대처행동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한달 용돈의 크기가 가장 크고, 성별은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고, 월평균소득은 세 번째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주거상태가 가장 적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많을수록,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택에 사는 대학생이 자취, 하숙,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대처행동을 적게 하고 있었다. 용돈과 월평균가계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식생활대처행동을 적게 하고 있었다. 자취, 하숙 또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은 자택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보다 용돈이나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식비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

<Table 5> Regression analysis results(effect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coping behavior in meal management)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β)
amount of discretionary expenditure	-.29***
irregularity of the amount of income	-.02
education level of mother	-.02
status of housing	.15***
monthly household income	-.17***
gender	-.18***
education level of father	-.08
constant	88.56
R ²	.199
adjusted R ²	.187

*** P<.001

석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황덕순(1995)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대처행동은 가정생활주기와 주부의 학력에 의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받았으나, 가장과 주부의 직업지위, 주거소유형태,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등에 의해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대처행동의 종류와 연구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경제적 불안과 식생활대처행동

〈Table 6〉을 보면 대학생의 식생활대처행동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불안, 소득불안 및 고용불안에 의해서 $P<.01$ 수준에서, 재정불안에 의해서는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가불안에 의해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상대적 박탈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및 재정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대학생일수록 이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식생활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불안이 식생활대처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재정불안이 가장 크고, 고용불안은 두 번째로 크고, 상대적 박탈불안은 세 번째로 큰 변수이고 소득불안이 가장 영향력이 작은 변수이다. 이들 변수들은 식생활대처행동 분산의 15.5%를 설명해 준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results(effect of economic distress on coping behavior in meal management)

	regression coefficient (β)
relative deprivation distress	.14**
income distress	.12**
consumer price distress	.05
employment distress	.15**
finance distress	.20***
constant	48.01
R ²	.155
adjusted R ²	.146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계는 경제적 불안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Voydanoff와 Donnelly(1989), 황덕순(1995) 및 예상하지 못한 가계의 재정요구가 발생했을 때 비상금을 사용하거나, 저축한 돈을 찾아 쓰거나, 새 옷을 사지 않거나 교양활동을 하지 않는 등 긴축재정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Vorcoe(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황덕순(1995)의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상관관계분석에서는 대처행동은 물가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 및 상대적 박탈불안과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의 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GLM(General Linear Model)분석에서는 소득불안과 상대적 박탈불안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으나, 물가불안, 고용불안 및 재정불안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MF 경제위기 전인 1995년에 주부를 조사한 자료에서는 소득불안과 상대적 불안이 즉각적인 대처행동을 유발하는 변수로 밝혀졌으나,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3월에 대학생의 식생활대처행동을 조사한 이 논문에서는 물가불안을 제외한 상대적 박탈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및 재정불안이 즉각적인 대처행동을 유발하는 변수로 밝혀졌다.

5. 식생활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

〈Table 7〉에는 식생활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경제적 불안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경제적 불안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과 한달 용돈의 크기는 $P<.001$ 수준에서, 주거상태와 재정불안은 $P<.01$ 수준에서, 소득불안과 고용불안은 $P<.05$ 수준에서 식생활대처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대적 박탈불안,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월평균소득 등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안 변수들 중에

서는 상대적 박탈변수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에서는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과 월평균소득이 의미 없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식생활대처행동 분산의 25.7%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경제적 불안변수들이 식생활대처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한달 용돈의 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재정불안, 성별, 주거상태, 고용불안, 소득불안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한달에 용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재정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또는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자택에 사는 학생들보다, 가장의 고용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소득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식생활대처행동을 적게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경제적 불안 변수들을 모두 회귀모형에 포함시킨 결과 설명력은 증가하였으나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감소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월평균가계소득과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이 의미 없는 변수로 나타났고, 경제적 불안 변수 중에서는 상대적 박탈불안 변수가 의미 없는 변수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불안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분석한 자료는 IMF 경제위기 직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의 정도가 갑자기 심각해 졌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불안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고용불안이나 재정불안이 식생활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직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따라서 재정불안도 더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대학생들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생활분야에서 조차 대처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식생활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경제적 불안 변수들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경제적 불안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회귀모형에서는 비록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설명력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경제적 불안변수들이 식생활대처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한달 용돈의 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재정불안, 성별, 주거상태, 고용불안, 소득불안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한달에 용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재정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또는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자택에 사는 학생들보다, 가장의 고용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소득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식생활대처행동을 적게 하고 있었다.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계는 다양한 대처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월평균가계소득은 대학생의 식생활대처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경제적 불안 변수 중에서 재정불안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고용불안과 소득불안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

<Table 7> . Regression analysis results(effect of economic distress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coping behavior in meal management)

	regression coefficient (β)
relative deprivation distress	.09
gender	-.17***
income distress	.09*
education level of father	-.11
irregularity of the amount of income	-.07
employment distress	.10*
amount of discretionary expenditure	-.24***
status of housing	.13**
finance distress	.17**
monthly household income	-.05
education level of mother	-4.1E-03
constant	69.73
R ²	.257
adjusted R ²	.236

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득보다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가계의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한 문제인 경제적 불안이 더 유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불안은 소득만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개념이고, 경제적 불안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의 경제여건, 대처행동의 특성과 영역,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경제적 불안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IMF 경제위기 직후에 울산지역의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불안을 대학생이 처한 요구상황으로 보고, 이 상황이 동기가 되어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생활 분야에서조차 대처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대상과 조사지역이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찾을 수 있고, 식생활대처행동 중에서 경제적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의도적이고 관리적인 대처행동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경제적 불안이 발생한 후 이에 대응하여 대처행동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이고 관리적인 대처행동을 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불확실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예방적 관점에서 대처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현재는 자신의 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나, 미래에 결혼을 하여 자신의 가계를 관리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부터 경제적 불안에 불확실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박영숙(1983). 도심지 빈민의 경제적 적응방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손상희(1995).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 3)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권 2호: 29-50.
- 4) 이종성(1998). IMF 이후 가계 소비생활의 변화와 특징. 소비자문제연구 제 21호: 55-74.
- 5)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최자령·임정빈(1996).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 7) 팽경인(1988). 노동자가족의 노동력재생산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현은민·최선남(1999). 시설보호 편모가족의 대처행동과 경제적 복지감. 대한가정학회지 제 37권 2호: 41-54.
- 9)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 10)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Andrews, F.M. & Withey, S.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Plenum Press, New York.
- 12) Berman, W.H. & Turk, D.C.(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3: 179-189.
- 13) Courtless, J.C.(1971). The effect of consumer credit on food expenditures. *Family Economics Review*, March, 22-24.
- 14) Hayes, D.J.(1989). Incorporation credit in demand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 23, 1-20.
- 15) Lazarus, R.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N.Y.
- 16) Pearlin, L.L.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19(1): 2-21.
- 17) Toal, W.D.(1986/87). Consumer debt: How severe is the problem?. *Review of Business* vol.8, 4-9.
- 18) Varcoe, K.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14(1): 57-69.

-
- 19) Voydanoff, P.(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Policy issues, *Journal of Family Issues*, 5, 273-288.
- 20) _____(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Nov.): 1099-1115.
- 21) Voydanoff, P. P, Donnelly, B.W.(1987).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 22) Voydanoff, P, Donnelly, B.W. & Fine, M.A. (1988). Economic distress, social integr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9, 545-564.